

# 1990年代 國防政策과 軍事運營分析\*

國防部 次官 林 憲 杓

## 1. 序 論

黃瓘泳 韓國軍事運營分析學會(MORS-K) 회장님, 林東源 外交安保研究院 원장님, 軍事關係 專門家 여러분, 產業體 및 學界의 專門家 여러분, 그리고 內外 貴賓 여러분!

그간 國防意思決定의 先進化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今年 秋季學術大會를 이처럼 성대하게 마련하여 本學會가 또 한번 더 도약할 수 있게 됨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慶賀하고 싶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격동하는 轉換期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40여년전 한때 인류에게 일말의 신비한 기대감조차 안겨주었던 共產主義는 失敗作으로서 실험을 종료하고, 宗主國인 蘇聯은 물론 그 勢力圈의 헝가리, 폴란드 등 東歐 여러나라까지도 資本主義的 開放과 改革의 새로운 소용돌이 속에 歷史的 大轉換을 모색하고 있으며, 西歐 EC國家는 1992프로젝트로 금세기 최대의 政治·經濟的 大統合을 시도하고 있고, 戰後 世界 最大의 富國이었던 美國은 이제 外債가 4,000억불이나 되는 世界 最大의 債務國家로 전락한 반면, 敗戰國 日本은 무려 2,400억불이나 되는 世界 最大의 債權國으로 부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軍事費도 年間 300여억불로서 美, 蘇 다음의 軍事大國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東·西間의 緊張緩和 趨勢와는 달리, 韓半島의 南·北對立은 加一層 尖銳化되고 있습니다.

北側은 韓國의 民主化 過程을 惡用하여 高度의 政治·心理攻勢를 縱·橫으로 강화하고 蘇聯의 後見下에 MiG-29 등 高性能 戰力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北側은 化學무기에 더하여 寧邊附近에 플루토늄 공장을 건설하여 年間 1個의 核爆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新聞報道입니다.

\* 本 記事는 1989年 秋季學術大會時 發表된 林次官의 激勵辭 內容임.

한편 國內에서는 民主化 열기와 統一論議 擴散을 틈타 北側 威脅에 대한 安保認識이 상대적으로 評價切下되고, 이에 따라 安保共感帶 形成問題, 韓·美 軍事協力問題, 韓國的 軍構造 및 武器體系 獲得問題, 國防費 確保問題 등 많은 懸案課題가 일시에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國內·外 國防環境이 급변함에 따라 야기되는 여러가지 어려운 國防政策課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주어진 제한된 國防資源(人力, 裝備, 物資, 施設, 情報)을 어떻게 잘 사용하면 南·北間의 軍事力 隔差를 조속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本人은 이에 대한 해답을 여기 모이신 여러분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90年代의 國防政策과 軍事運營分析”이란 주제로 평소 느껴 왔던 몇가지 소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2. “企劃 贊成, 計劃 反對”의 不協和音

요즈음 新聞을 보면 政策問題에 대한 攻防戰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의 아이러니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總論的 概念에는 贊成, 그러나 各論의 구체적 계획에는 反對”라는 意見對立 現象으로서, 한 예로 “金融 實名制를 실시하자” 또는 “土地公概念 制度를 導入하자”는 政策次元의 方向에 대해서는 너나없이 贊成意見を 開陳하지만 各論的 具體案에 대해서는 階層間의 利害 相衝으로 反對意見이 續出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變質되거나 遲延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軍의 경우에서도 “韓國的 作戰環境과 與件에서는 統合軍制度가 좋다.”든지, “豫備戰力を 強化해서 常備軍의 所要를 억제하는 것이 理想的이다.”라든지, 또는 “社會發展 趨勢에 副應하여 停年을 현실성있게 延長해야된다.”는 데에는 異口同聲으로 찬성으로 보내지만 막상 계획화된 내용이 “個人的 補職, 進級, 退職 등에 影響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各論的 具體案에 대해 많은 葛藤과 잡음이 야기되곤 합니다.

이러한 利害關係 對立現象은 앞으로 社會의 多元性和 複雜性이 증폭됨에 따라 더욱 深化될 것이며, 정도가 지나칠 경우 불필요한 에너지를 消盡하여 國防力 強化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解消할 수 있는 積極的인 方案이 모색되어야 하겠는 바, 本人은 그 답을 보다 완전한 計劃에서 구하고 싶으며, 計劃의 內實化는 오직 여러분의 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① 즉, 여러분이 計劃을 發展시킬 때 必히 企劃 基本精神을 충분히 존중하며, ② 諸般 葛藤 및 對立條件을 고루 愛用·吸收하고, ③ 時間的 및 空間的 緩衝을 기하면서, ④ 總合的 體系(total system)의 관점에서 關聯要素를 잘 調和시키면 葛藤을 解消시킬 수 있는 呼訴力이 向上되고

相互間の 理解増進으로 원만한 推進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① 여러분과 같은 專門家를 더욱 組織的으로 대폭 양성하고 適材適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② 討議文化가 정착된 효율적인 意思決定體系를 PPBEES의 흐름에 따라 整備構築하고, ③ 情報自動化時代의 寵兒인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各論”不在에서 오는 混沌을 방지하고 國防이 착실히 발전할 것입니다.

### 3. 產一學一軍의 協助된 팀 어프로치

오늘날의 國防問題는 軍만이 단독으로 노력해서 解決할 수 있는 領域을 이미 벗어 났습니다. 軍은 國民의 子弟로 構成되어 있고, 國民의 稅金으로 戰力을 維持 및 增強시키고 있으며, 國民의 後援 속에서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고 國家利益을 追求하기 위해서 存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自由民主國家體制下的 民-軍 相互間の 理解 및 協力, ② 市民社會 發展에 副應한 軍-社會間的 독특한 特性의 理解와 相互作用, ③ 그리고 國防體系의 複雜化 및 科學化에 따른 產-學-軍間的 知慧와 努力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歷史를 잠시 回顧해 보면, 軍과 社會는 不可分의 연계고리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컨대 會社를 영어로 Company라고 칭하는데, 이는 初期 會社組織이 步兵中隊 (Infantry Company)를 模倣해서 편성했기 때문이고, 土木工學을 영어로 直譯하면 市民工學 (Civil Engineering)이라고 하는데 이는 美 웨스트 포인트 出身이 軍工學 (Military Engineering)을 士官學校에서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西部開拓時 눈부신 貢獻을 한 것을 民間 社會에서 吸收, 應用한데서 起源되었다고 합니다.

最近에서 이르러서는 軍事用途로 개발한 核武器 및 航空宇宙 技術이 一般社會의 尖端技術商品 發展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現在, 大學 正規科目중에 하나인 運營分析 (Operations Research)도 2次世界大戰 中 軍에서 효시가 되어 產業에 응용된 것임은 여러분이 이미 周知하시는 사실입니다.

한편 社會가 軍에 미치는 影響 또한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黑色火藥의 發明은 戰鬥隊形 및 戰術樣相을 근본적으로 변모시켰고, 內燃機關의 發明은 機動速度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 機動 癡痺戰略을 급속히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이 2次世界大戰에서 승리한 가장 큰 原因은 美國의 產業 및 科學技術 能力이었다고 합니다. 短期間에 수많은 戰車, 航空機, 野砲, 彈藥 등 大量的의 軍需品을 생산하고 原子彈을 發明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戰後 아이젠하워 將軍은 “2次世界大戰의 勝利原因을 龜鑑 삼아서 平時에도 科學者와 軍間に 意思交流와 協助體制를 強化

維持하고, 産業體의 生産能力을 軍의 資産으로 여겨 有機的인 戰時動員 協力體制를 維持할 것"을 敎書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美國의 軍·産 複合(Military-Industrial Complex) 現像의 基因이라고 批判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나, 産·學·軍間에 平時부터의 健全한 協力關係가 將次戰에 效果적으로 對備할 수 있는 捷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를들면 오늘날 領空을 지키는 防空計劃이 어찌 軍만의 頭腦로써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最尖端 技術이 集結된 早期警報 및 指揮統制體系를 어떻게 軍만의 힘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軍備統制問題도 軍事的 側面 以上の 國家戰略의 概念과 복잡히 얽혀 있으며, 軍用地 徵發 및 解除問題도 國民의 財產權 및 國土 綜合開發計劃과 밀접히 連繫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現在는 물론 앞으로는 더욱 더 民·軍, 産·學·軍間의 有機的인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로 衆智를 수렴하여 國防問題를 발전시켜야 겠으며, 이런 의미에서 볼때 産·學·軍의 專門家가 모인 本學會(MORS-K)의 役割과 活動이 크게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 4. 軍事 OR의 새로운 方向摸索

이제 우리는 80年代를 마감하고 大望의 90年代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昨今の 國內·外 情勢를 바라보건대 國防의 諸般與件 및 環境은 더욱 어려워지고 많은 課業이 山積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 南·北間의 軍備統制方案이 事前에 研究되어야 하겠고, ② 民·軍間의 眞實한 理解 및 協力關係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며, ③ 社會變化에 부합되게 各種 制度, 節次 및 規定이 현대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④ 軍의 士氣 및 福祉向上 方策이 生涯管理(Life-Cycle Management) 側面에서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⑤ 國防 投資費의 효율성을 좀더 증진시킬 수 있는 武器選定 및 獲得代案 比較 方策이 강구되어야 하고, ⑥ 世代變化에 따른 韓·美 聯合防衛體制의 합리적인 발전과, ⑦ 韓國的인 自主國防態勢 發展方案 등이 좀더 可視化되어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이와 같이 상호 얽혀진 복잡하고 난해한 問題들을 해결하는데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役割과 새로운 OR 接近姿勢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本人이 이해하기로는 OR은 "現實的 實用性 및 適合性"을 배경으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OR 關係 學術誌를 보면 "數學的 表現"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고(OR 學會誌에 掲載된 論文中 40%가 數學) "費用 對 效果分析方法"을 응용하는 수단도 事實世界 描寫에 限界가 있으므로 때로는 OR의 學問的 存在意義에 대해 疑問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OR 專門家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수많은 數學的 技法과 컴퓨터 威力에 지나치게 매료되어 現實問題에 대한 外生的 變數를 愛用하기를 거부하거나, 모델의 前提的 假定事項의 硬直性으로 實際 應用에 限界를 露呈하게 되는 점인데,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自己陶醉的 慣性과 我執에서 과감히 탈피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비록 OR을 專攻한 學問的 背景이 전혀 없지만, 어떤 한 兵士가 자신이 조작하는 裝備에 대한 整備節次와 注油方法을 잘 改善하여 裝備의 可用性(availability), 信賴性(reliability) 및 性能(capability)을 2배나 향상시켰다면, 이 兵士는 OR을 専門적으로 공부한 理論家보다 戰力增強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고 평가받는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즉, 우리 軍事 OR 專門家가 中·長期 軍事 企劃判斷, 中·短期 事業計劃, 作戰運營 改善, 在庫管理, 整備管理, 워-게임, 制度改善 등 수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함에 있어서, “모델의 理論的 멋” 못지 않게 “實用性 增進”에 의한 戰力化 寄與度 向上에 좀더 역점을 두고, 創意力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國防問題는 시간이 지날수록 複雜 多樣性과 所要費用이 대폭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OR 專門家만에 의한 計量的 技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당초 OR 胎動의 背景에서와 같이 政治, 經濟, 社會, 經營, 컴퓨터, 基礎科學, 應用工學 등 여러 學問的 背景을 가진 專門家와 實務 從事者가 밀접히 連繫한 “多學際的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해서 解答을 구하는 자세를 키워 나가시길 당부합니다.

## 5. 맺음말

軍事運營分析(OR)學會는 우리나라에서 產·學·軍이 함께 자리를 같이 하는 유일한 모임으로서, 불원간 우리에게 다가올 90年代의 國防態勢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욱 重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國防發展의 先驅者의 위치에 있음을 자부하시고 山積한 國防問題를 科學的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① 目標志向性을 계속 유지하시고, ② 科學的 方法에 의한 客觀的인 자세로서, ③ 實事求是의 實用性 向上을 염두에 두시면서, ④ 產·學·軍의 밀접한 連繫下에, 汎國家的 次元에서 最適解(optimal solution)를 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人은 여러분이 모이신 本學會의 發展速度가 軍事發展을 加速시킨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오늘 이처럼 성대한 學術모임을 마련해 주신 黃濶泳 學會長님과 會員 여러분에게 거듭 感謝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